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환경선교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0. 다 감사 드리세 다함께

♠ 공동기도 자연신경 다함께

우리는 사람과 자연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느님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으며,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의 섭리를 가르치시고,
 하느님·사람·자연을 화해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생명의 바람으로 오시어 피조물을 살리시는 성령님을 믿나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피조물 속에 충만함을 믿으며,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가
 생명 살림의 터전임을 믿으며
 그리스도안에서 생명 살림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느님의 영광과 자연의 힘과
 사람의 신실한 노동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감을 믿으며,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는 녹색교회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나이다.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여
 지구 생태계에 치명적인 아픔을 주었음을
 하느님과 자연 앞에 참회하나이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자기를 비워 인류와 자연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시어 생명살림의 길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나이다.
 우리는 신실하게 창조질서에 순응하는
 자연의 가르침대로 살겠나이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60:19-20 인도자

♠ 교 독 문	4. 시편 8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이	다함께
대표기도	I. 임보람 선생 II. 한상의 장로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70. 어둔 밤 쉬 되리니	다함께
성경봉독	I. 요2:1-12 II. 롬8:18-30	인도자 조문규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함께함의 기적 II. 희망이 된 사람들	최인환 전도사 양재성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265.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4.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다함께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결단의 고백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2남선교회 주최예배	6월 기도의 밤
설교: 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 교	기 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인도자 김재흥 목사	인도자 김준호 권사

6월	영접위원	윤석철	김중수	박범희	김애경	표명화	박현우
	헌금위원	구성실	김정길	김근중	김훈동	김필순	노순옥

■ 믿/음/으/로/위/는/글/

2005 온실가스 감축 기독교인 선언

우리 기독교인은 2005년 환경주일을 맞아 지구 온난화로 인한 전 지구적 환경재앙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책임을 통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 현상황

최근 인류가 경험하는 환경재앙은 그 빈도 수와 피해 규모에 있어서 전례 없는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남극과 북극의 해빙, 그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은 경지면적의 감소로 식량대란을 예고하고 있으며 지구 곳곳에서 사막화가 진행됨으로 인류의 허파가 줄고 있다. 기후변화는 치명적인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잦은 엘니뇨 현상은 해류 이동에 혼선을 주어 빙하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국제적 구속력을 갖는 교토의정서를 2005년 2월 16일에 발효시켰다. 이는 인류 생존을 위해 인류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임을 천명한 것이다.

오래 전부터 선진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여 실용단계에 이르렀다. 풍력,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녹색에너지가 주체적인 시민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얻고 있다.

■ 신학적 응답

자연에 대한 인간의 범위가 이제 끔찍한 재난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기후변화의 충격이 미래세대의 운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산업사회를 이끌어 왔던 선진국에게 있으니, 이들의 자발적 책임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 세대의 자기 이익과 편리를 추구하는 생활방식과 사회체제를 반성하고 바뀌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인의 과제는 하나님과 함께 창조세계를 보전하고 갱신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날씨의 징조를 보고 시대의 징조를 알라(마 16:2~3)'고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연 만물과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화해의 사역

(골1:20)에로 우리를 부르신다. 교토의정서 발효를 계기로 지구 재난의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일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 행동지침

◆ 개인

-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삶을 회개하며,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 우리는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 우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과 중고품을 애용하는 건전한 소비문화를 권장한다.
- 우리는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즐겨 타고, 대중교통을 생활화한다.

◆교회

- 우리는 교회가 전담 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이루도록 촉구한다.
- 우리는 지역주민과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 생태적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한다.
-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인 숲을 회복하는 것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길임을 믿고, 북한과 중국 등의 산림이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우리는 세상 만물이 우리와 한 몸임을 고백하며, 온실가스로 인한 환경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을 돌보기 위해 노력한다.

◆ 기업과 정부

- 우리는 기업이 지구 생존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이루도록 촉구한다.
- 우리는 정부가 개도국의 위치에 있다는 안일함에서 벗어나 핵에너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책임 있게 만들도록 촉구한다.
- 우리는 정부가 지구 재난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촉구한다.

■ 마/음/으/로/읽/는/글

윗논에 물이 있으면

“농사꾼은 꿈속에서도 눈에 물이 마르면 안 된다” 할만큼 물은 농사에 중요한 것이다. 물 도둑질은 세상이 다 아는 도둑질이기도 했고,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던 이웃간에도 붓물싸움에는 살인이 나곤 했다. 물은 아래로 흐른다. 한결같고 정직하다.

윗논에 물이 있으면 아랫논은 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윗논에서 물꼬만 트면 아랫논으로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엿 사람이 물을 지니고 있어야 아랫사람이 든든한 법이다. 내가 부족할 때에 쳐다볼 곳이 있고, 도움을 받을 곳이 있기 때문이다. 든든한 어른이 곁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든든하고 고마운 일이었다. 아랫논을 위해서라도 물을 넉넉히 담고 있어야 할 윗논이 스스로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여간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눅6:35)

뛰어넘기

세상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로 가득하다. 행복 뒤에는 슬픔이 있고, 슬픔 뒤에는 행복이 있다. 햇빛이 비치는 곳이면 어디든 그늘이 있고, 빛이 있는 곳이면 어두움이 있게 마련이다. 태어남이 있는 곳에는 또 죽음이 있다. 무집착은 이러한 상반된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을 이겨내는 길은 이들을 없애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뛰어넘고 일어나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간디)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운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김춘려 방현복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윤석철 장혜숙 방문성
 박혜경 한상의 정영선 김중수 이순정 안종일 정현주 박창운 허정윤 임승동
 백혜숙 박규석 박경선 박성수 김애경 백묘현 이봉옥 박영숙 임창선 김용길
 최영혜 임 영 정경례 이유선 방극숙 방 민 안정숙 박정숙 고광송 이춘희
 박홍엽 문홍일 김희진 박홍재 양재성 임미심 김성한 조영순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윤성종 김윤정 정미경 김승현 김수진 정진경 허광식 이동천
 황경순 김창원 정지은 최주환 문복순 왕수명 이소순 박준희 이기분 박정석
 고숙이 박상규 김창경 이증자 이희균 김영한 권미정 박범희 박미영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하재두 장준호 왕성환 고사일 최영선 박금희 박두석 송양진
 유증희 이재문 이봉옥 조항범 김용진 박효선 이봉배 김철수 유영남 윤석철
 장혜숙 최종원 장하연 무명2

생일감사헌금:

윤미경 박옥순 허다영 안종일 정현주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 음 장 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오 송 경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배 부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정 진 경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이 봉 배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문 금 석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문 복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이 인 섭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최 희 정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강 순 배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구 성 실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박 찬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박 미 경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환경선교주일** : 피조물을 잘 돌보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돌아보고, 새로운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로 삼아야하겠습니다.
2.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3. **오후집회** : 제2남선교회 주최 예배입니다. 은혜받는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4. **기도의 밤** : 오는 8일(수) 저녁 7시 30분에 모입니다. 중보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때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5. **새교우환영회** : 6월 19일 오후 12시 20분부터 중고등부실에서 금년도에 우리 교회의 새 가족이 되신 이들이 사귄 시간을 갖겠습니다.
6. **신앙실천** :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 헌화 : 권혁순 집사 박혜경 집사 (어머니 배삼순 권사님 생신 축하)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